積石木槨墳文化地域의 帶金具

— 三葉文透彫帶金具를 中心으로 —

朴 普 鉉*

目 次

머 리 말
Ⅰ. 帶金具의 型式分類
Ⅱ. 帶金具의 地域性
Ⅲ. 帶金具의 性格
맺 음 말

머 리 말

帶金具는 鉸具, 銙(銙板部와 垂下部로 구성된), 띠끝장식, 腰佩의 네부분으로 구성되어[1] 있다. 이들 구성요소 가운데서 銙는 廣域的 分布現狀을 보임에 따라 한 개의 型式으로 분류된 이래[2] 銙板部와 垂下部의 무늬종류, 외부모양 등에 의해 세분되고 있다. 이들 분류안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지나친 相對編年을 의식한 나머지 서로 다른 형식의 共存問題가 사상되고 새로운 형식의 발생적 측면에 치우치고[3] 있다. 그 결과 銙의 多樣性과 관련되는 문제에는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三葉文이 투조된 方形銙板에 心葉形 垂下飾을 갖춘 帶金具를 대상으로[4] 선학들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方形銙板部와 心葉形 垂下部의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속성들을 가능한 세분하고, 이들 속성이 완성된 帶金具에 어떻게 共存하는 것인가에 의해 型式分類를 행하고자 한다. 그 후 적석목곽분문화지역에서 어떠한 型式이 共通的으로 분포하고 있는지 알아 보고, 동일형식 안에서의 재질이나 크기 등을 비교해 봄으로써 대금구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 보기로 한다. 아울러 특정형식과 반출유물의 공반관계를 정리해 봄으로써 대금구를 부장한 피장자의 성격문제에 언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가 적석목곽분시기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면 다행이겠다.

* 大邱敎育大學博物館 助敎

Ⅰ. 帶金具의 型式分類

1) 銙板部의 屬性

革帶에 고정시키는 장식물인 長(方)形 銙板部에는 9개의 못구멍이 뚫려 있음이 통례이다. 또한 銙판부에 형성된 무늬는 좌우대칭을 이룬다. 이러한 두가지의 공통성을 가지는 (長)方形 帶金具의 銙板部 屬性은 다음과 같다. 즉 속성①;과판부의 중심무늬, 속성②;중심무늬 가운데 아래쪽 콤마문[5]의 특징, 속성③;중심부의 상하 콤마문 배치상태, 속성④;중심부의 상하 콤마문 밖의 투조문 종류이다.

속성①은 A;三葉文과 B;非三葉文으로 나누어진다. 三葉文(A)은 속성②에 의하여 Ⅰ;寶珠形 三葉文과 Ⅱ;直線形 三葉文이 있다. 속성③에는 1;중심부의 무늬와 주변부 무늬의 세로 길이가 거의 같은 것, 2;주변무늬의 굴곡점 바로 아래서 중심부 무늬를 투조하여 상·하의 무늬로 구별되는 것, 3;과판부 윗부분 무늬 아래쪽 1/3정도에서 아래쪽 무늬가 뚫린 것 4;상·하로 무늬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있다. 속성④에는 ㄱ;콤마문만을 뚫은 것, ㄴ;중심부에 △문을 상하로 뚫은 것, ㄷ;콤마문의 굴곡점 안쪽에 ○文을 뚫은 것, ㄹ;중심부 무늬를 뚫고 과판부 네 모서리에 눕은 콤마문을 투조 한 것이 있다.

非三葉文(B)은 a;③字文을 뚫은 것, b③; 字文 중앙의 상하에 凹文을 뚫은 것, c;△文과 ○文을 뚫은 것 d;退化된 龍文을 뚫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垂下部의 屬性

銙板部에 붙은[6] 연결판에 부착되는 垂飾部는 장방형 현수공과 心葉形 모양을 갖추고 있다. 이들 공통성을 제외한 수하부의 속성은 두가지 이다. 속성①은 외부모양이며, 속성②는 내부 무늬배치이다. 속성①에는 甲;현수공 좌우에 위로 칼퀴를 2개 만든 것, 乙;칼퀴가 전혀 없는 것, 丙;현수공 좌우의 칼퀴가 없고 圓孔으로 남은 것, 丁;非心葉形인 것의 네 종류가 있다.

속성②에는 가;내부에 아래로 향한 두개의 칼퀴를 낸 것, 나;상·하에 두개씩의 칼퀴를 낸 것, 다;상·하 두 개씩의 칼퀴를 내면서 대각선으로 이들을 연결시킨 것, 라;중앙에 복주머니형을 뚫고 좌우에 콤마문을 떼어낸 것, 마;복주머니모양의 가운데가 잘려 2分되고, 좌우에 콤마문, 아래쪽에 하현달 모양으로 떼어낸 것, 바;중앙 위쪽에 역△문을 뚫고, 그 아래에 逆三葉文은 뚫고 주위에 콤마문 4개를 눕혀 뚫은 것, 사;부채꼴 모양을 떼어내고 좌우 위쪽에 ○文을 투조한 것, 아;중앙 윗쪽에 긴 역△문을 뚫고 그 아래에 역 三葉文을 뚫은 것, 자;중앙에 삼엽문을 남기도록 콤마문을 배치하고 좌우와 위쪽에 다시 4개의 콤마문을 배치시키고, 아래쪽 중앙에 △문을 뚫은 것, 차;내부에 심엽형을 뚫은 것, 카;중앙에 3엽문이 남도록 콤마문을 뚫고 상하좌우에 콤마문을 배치하고 중앙 위쪽은 역△문 1개, 아래쪽은 △문 2개를 배치시킨 것, 타;퇴화된 용문을 배치한 것의 속성을 나타낸다.

3) 帶金具 型式分類

〈表 1〉 銙板部·垂下部의 屬性 相關關係

銙板部 屬性 / 垂下部 屬性		A								B				
		I				II				a	b	c	d	e
		1ㄱ	2ㄱ	2ㄹ	3ㄱ	3ㄱ	3ㄴ	3ㄷ	4ㄱ					
甲	가				14-1 성산동1호 내당동59호 교동12호	금관총 식리총 16-4? 16-5? 내당동51-2 내당동55호			98-북 155 33-동 호우총 98-남 인왕동C-1 탐리1·2곽 양산부부총			110호	98-남	
	나					식리총			155 교동7호					
	다										교동11호			
	라	금관총 송산리1호												
	마		서봉총											
	바			금조총										
	사						교동7호 교동9호							
	차													북사동2호
乙	가					식리총 국은수집품				82-동				
	사					138호								
丙	가						양산부부총 (여자)							
	사						금관총	금령총						
	마								교동7호 교동89호					
	자			창녕교동 고분군										
	카			155호										
丁	타												황오리4호 식리총?	

〈表 2〉 帶金具 各 型式의 出土地

型 式	地 域	遺 蹟	典 據
AⅠ$_{1ㄱ}$・甲$_{라}$	경주	금 관 총	濱田耕作・梅原末治《慶州金冠塚と其遺寶》1924, 도판상책, 도판38,39~14, 15
	공주	송산리1호분	野守健・神田惣藏《1927年度古蹟調査報告》1935
AⅠ$_{2ㄱ}$・甲$_{마}$	경주	서 봉 총	《博物館陳列品圖鑑(영인본)》民族文化社, 1982.
AⅠ$_{2ㄷ}$・甲$_{바}$	양산	북정리21호분	《季刊考古學》33, 1990
AⅠ$_{2ㄷ}$・丙$_{자}$	창녕	교동고분군	《慶熙大學校 博物館圖錄》1986
AⅠ$_{2ㄷ}$・丁$_{카}$	경주	천 마 총	文化財管理局《天馬塚發掘調査報告書》1974, p.103, 삽도 58
AⅠ$_{3ㄱ}$・甲$_{가}$	경주	14호분 1곽	齊藤忠《1934年度古蹟調査報告》1, 1937
	대구	내당동 59호분	野守健・小泉顯夫《1923年度古蹟調査報告》1932
	창녕	교동 12호분	穴澤咊光・馬目順一〈昌寧校洞古墳群〉《考古學雜誌》60~4, 1975
	성주	성산동 1호분	濱田耕作・梅原末治《1918年度古蹟調査報告》1922
AⅡ$_{3ㄱ}$・甲$_{가}$	경주	금 관 총	濱田耕作・梅原末治《앞의 책》도판 39, 1~3(1)
		16호분 4곽	穴澤咊光〈慶州古新羅古墳の編年〉《古代學》18~2, 1972
		16호분 5곽[7]	〃
		식 리 총	梅原末治《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1932
	대구	비산동 34호 1곽	野守健・小泉顯夫《앞의책》
		내당동 51호 2곽	〃
		내당동 55호분	〃
AⅡ$_{3ㄱ}$・乙$_{가}$	경주	식 리 총	梅原末治《앞의 책》1932
	?	국은수집품	國立慶州博物館《菊隱李養濬寄贈遺物圖錄》
AⅡ$_{3ㄱ}$・乙$_{사}$	경주	138 호 분	國立博物館《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2, 1955
AⅡ$_{3ㄴ}$・甲$_{사}$	창녕	교동 7 호분	穴澤咊光・馬目順一〈앞의논문〉
		교동 9 호분	〃
AⅡ$_{3ㄴ}$・丙$_{가}$	양산	북정리 10 호분	小川敬吉《古蹟調査特別報告》5, 1927
AⅡ$_{3ㄴ}$・丙$_{사}$	경주	금 관 총	濱田耕作・梅原末治《앞의책》도판 39~7, 8, 9
AⅡ$_{3ㄷ}$・丙$_{사}$	경주	금 령 총	梅原末治《앞의 책》
AⅡ$_{4ㄱ}$・甲$_{가}$	경주	98 호 남 분	文化財管理局《慶州皇南洞 第98號 古墳(南墳)發掘略各報告》1976
		98 호 북 분	文化財研究所《皇南大塚北墳發掘調査報告書》1985, 도판9
		천 마 총	文化財管理局《앞의책》1974, 도판12
		인왕동 C-1호분	嶺南大學校博物館《新羅文化展圖錄》1986, p.26
		34호분 1곽	慶北大學校博物館《慶北大學校博物館圖錄》1988
		33호분동곽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古蹟調査報告》2, 1969
		호 우 총	國立中央博物館《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1, 1946
	의성	탑리고분 1 곽	國立中央博物館《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3, 1962
		탑리고분 2 곽	〃
	양산	북정리 10 호분(男)	小川敬吉《앞의책》5, 1927
	대구	구암동 56 호 주곽	嶺南大學校博物館《鳩岩洞古墳發掘調査報告》1978
AⅡ$_{4ㄱ}$・甲$_{나}$	경주	천 마 총	文化財管理局《앞의 책》1974, p.103, 삽도54
AⅡ$_{4ㄱ}$・丙$_{아}$	창녕	교동 7 호분	穴澤咊光・馬目順一〈앞의 논문〉
		교동 89 호분	〃
Bb・甲$_{라}$	창녕	교동 11 호분	〃
Bc・甲$_{가}$	경주	110 호 분	文化財管理局《慶州地區古墳發掘調査報告書》1, 1975
Bd・甲$_{가}$	경주	98호분남곽	文化財管理局《앞의 책》1976
Bd・J$_{타}$[8]	경주	4 호 분	國立博物館《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5, 1964
Ba・?	경주	82호분 동곽[9]	有光敎一《1931年度古蹟調査報告》1, 1935
?・甲$_{가}$	경산	임당동IV-A곽	尹善姬〈앞의 논문〉p.339
?・甲$_{나}$	경주	식 리 총	梅原末治《앞의 책》
	창녕	교동 7 호분	穴澤咊光・馬目順一〈앞의 논문〉

이상에서 銙板部의 속성과 垂下部의 속성 공존관계를 정리해 보면 〈表 1〉 과 같다. 여기에 의하면 24종류의 공존관계가 상정된다. 共有關係 자체를 좀 번거롭긴 하지만 하나의 型式으로 설정하고, 적석목곽분문화지역에서 출토한 대금구의 형식을 정리하면 〈表 2〉 와 같다.

Ⅱ. 帶金具의 地域性

1) 分　布

적석목곽분문화지역에서 長(方)形 帶金具를 출토하는 지역은 대구(비산·내당·구암동), 경산(임당·북사등), 창녕(교동·송현동), 양산(북정리), 의성(탑리), 성주(성산리), 공주(송산리), 영일(냉수리[10])등이 있다. 이들 지역에서 발견된 대금구의 각 형식을 정리해 보면〈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 의하면 경주지방에는 11개 형식(AⅠ$_{2ㄱ}$·甲$_{마}$, AⅠ$_{2ㄹ}$·丁$_{카}$, AⅡ$_{3ㄱ}$·乙$_{가}$, AⅡ$_{3ㄱ}$·乙$_{사}$, AⅡ$_{3ㄴ}$·丙$_{사}$, AⅡ$_{3ㄷ}$·丙$_{사}$, AⅡ$_{4ㄱ}$·甲$_{나}$, Ba·?, Bc·甲$_{가}$ Bd·甲$_{가}$, Bd·丁$_{타}$), 양산지방에는 2개형식(AⅠ$_{2ㄹ}$·甲$_{바}$, AⅡ$_{3ㄴ}$·丙$_{가}$), 창녕지방에는 4개형식(AⅠ$_{2ㄹ}$·丙$_{자}$, AⅡ$_{3ㄴ}$·甲$_{사}$, AⅡ$_{4ㄱ}$·丙$_{아}$, Bb·甲$_{다}$), 경산지방에는 1개 형식(Be·甲$_{차}$)등과 같이 지역간에 공통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금구 형식들이 분포하고 있다. 그런데 4개 형식(AⅠ$_{1ㄱ}$·甲$_{라}$, AⅠ$_{3ㄱ}$·甲$_{가}$, AⅡ$_{3ㄱ}$·甲$_{가}$, AⅡ$_{4ㄱ}$·甲$_{가}$)의 대금구[11]만은 적석목곽분문화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형식을 달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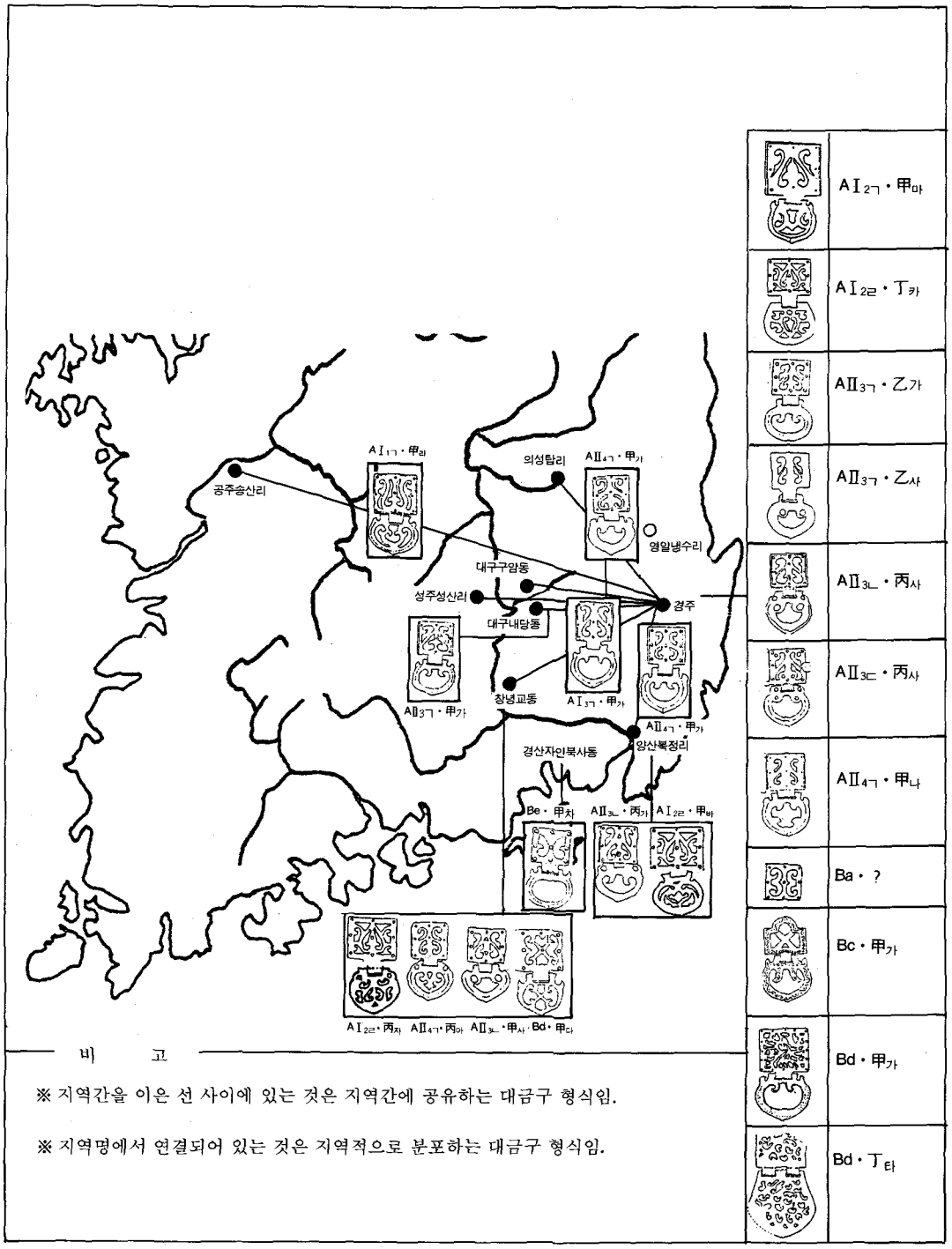
AⅡ$_{4ㄱ}$·甲$_{가}$ 형식은 의성탑리, 대구 구암동,양산 북정리와 경주지방에 분포하고 있다. AⅠ$_{3ㄱ}$·甲$_{가}$ 형식은 대구 내당동, 성주 성산리, 창녕 교동과 경주지방에 분포하고 있다. AⅡ$_{3ㄱ}$·甲$_{가}$는 대구 비산동·내당동과 경주지방에 분포하고 있다. AⅠ$_{1ㄱ}$·甲$_{라}$형식은 공주 송산리와 경주지방에 분포하는데, 지역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2) 材　質

〈그림 1〉 에서 나타나는 지역간 동일 형식의 대금구의 材質은 어떠한지 조사해 보자. 型式分類의 基準으로 材質이 고려되고[12] 있으나 帶金具에서는 이런 점이 적용되지 않는다[13]고 한다. 樹枝形立華飾冠에서 볼 때도 재질은 신분적 차이로 생각된다.[14] 대금구의 재질은 금, 은, 금동으로 나누어지는데[15] 이를 형식별로 정리하면 〈表 3〉 과 같다.

〈表 3〉 에서 보면 경주지역을 제외한 적석목곽분문화지역에는 銀製·金銅製인 반면 경주지방은 金·銀製가 공존하고 있다. 이를 型式별로 살펴 보기로 하자. AⅠ$_{3ㄱ}$·甲$_{가}$는 경주·대구·창녕·성주지방에 분포하는데 모두 銀製이다. 경주·대구지방에만 분포하는 AⅡ$_{3ㄱ}$·甲$_{가}$도 모두 은제이다. 경주·의성·대구·양산에 분포하는 AⅡ$_{4ㄱ}$·甲$_{가}$는 경주에서는 금제품과 은제품이 공존하며, 의성탑리에서는 은제품과 금동제이며, 양산지방에는 은제, 대구구암동에는 금동제가 분포하고 있

〈그림 1〉 地域間 帶金具型式의 共有關係



비 고

※ 지역간을 이은 선 사이에 있는 것은 지역간에 공유하는 대금구 형식임.

※ 지역명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지역적으로 분포하는 대금구 형식임.

〈表 3〉 同一型式에 있어서의 材質

材質 / 型式	地域	金	銀	金銅	비고
AⅠ$_{3ㄱ}$·甲$_{가}$	경주		○		
	대구		○		
	창녕		○		
	성주		○		
AⅡ$_{3ㄱ}$·甲$_{가}$	경주		○		
	대구		○		
AⅡ$_{4ㄱ}$·甲$_{가}$	경주	○	○		
	의성		○	○	
	경산		○		
	대구			○	
	양산		○		
AⅠ$_{1ㄱ}$·甲$_{라}$	경주	○	○		
	공주		○		

다. 경주와 공주지방에 분포하는 AⅠ$_{1ㄱ}$·甲$_{라}$도 경주지방은 금제와 은제가 분포하며, 공주지방은 은제가 발견되었다.

적석목곽분문화지역에 분포하는 동일형식의 대금구에서 지역적 재질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형식은 AⅡ$_{4ㄱ}$·甲$_{가}$와 AⅠ$_{1ㄱ}$·甲$_{라}$ 인데,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AⅠ$_{1ㄱ}$·甲$_{라}$를 제외하면, AⅡ$_{4ㄱ}$·甲$_{가}$ 1개 형식뿐이다. 동시에 AⅠ$_{3ㄱ}$·甲$_{가}$와, AⅡ$_{3ㄱ}$·甲$_{가}$ 형식은 지역적으로 재질차이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크 기

금속판을 가지고 수하부와 과판부를 만드는 공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으며, 크기의 규정문제나, 복잡한 투조문의 공정이 어떻게 행하여졌는지는 의문이나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과판부의 크기(가로×세로)와 과판의 매수는 〈表 4〉와 같다.

〈표 4〉에서 알 수 있는 것은 銙板部의 모양은 方形·橫長方形·縱長方形의 세 종류가 있지만 縱長方形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각 형식별로 볼 때 AⅠ$_{3ㄱ}$·甲$_{가}$의 경우는 경주지방의 것은 2.7㎝×2.7㎝임에 비해 적석목곽분문화지역의 것은 이 보다 작다는 점이다. 이 형식은 재질은 모두 은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기도 한다. 과판의 수에 있어서는 14호분 1곽이 33개, 성주성산동 1호분이 34개이다.

〈表 4〉 同一型式 帶金具의 크기

(單位 cm)

型 式	出土古墳	規格 (가로×세로)	形態	銙板部 (개)
AⅠ$_{3ㄱ}$·甲$_{가}$	14호분 1곽	2.7×2.7	方形	33
	교동 12호분	2.4×2.5	縱長方	?
	성산동 1호분	2.5×2,55	〃	34
	내당동 59호분	2.5×2.7	〃	10片
AⅡ$_{3ㄱ}$·甲$_{가}$	금관총	2.7×?	?	?
	식리총	?	?	?
	16호분 4곽	?	?	?
	16호분 5곽	?	?	?
	내당동 34호분 1곽	3.0×3.0	方形	?
	내당동 51호분 2곽	3.3×3.1	橫長方	24
	내당동 55호분	?	?	?
AⅡ$_{4ㄱ}$·甲$_{가}$	98호분 남곽	2.7×2.9	縱長方	34
	98호분 북곽	3.73×3.92	縱長方	28
	천마총	2.7×3.1	〃	44
	33호분 동곽	2.9×3.0	〃	?
	인왕동 C-1호분	?	〃	?
	34호분 1곽	?		21
	호우총	?		4片
	탑리고분 1곽	3.5×3.2	橫長方	?
	탑리고분 2곽	3.0×3.1	縱長方	37
	양산부부총 男	2.55×2.62	縱長方	36
	구암동56호 주곽	3.1×3.3	〃	?

AⅡ$_{3ㄱ}$·甲$_{가}$ 의 경우 경주지역은 2.7 cm를 나타내지만, 적석목곽분문화지역(대구 내당;비산동 뿐임)의 것은 3.0 cm~ 3.0cm, 3.3cm×3.1cm 으로 나타난다. 이 형식도 AⅠ$_{3ㄱ}$·甲$_{가}$와 같이 지역적 재질차이를 인정할 수 없는 형식의 것이다. AⅡ$_{4ㄱ}$·甲$_{가}$의 경우는 워낙 복잡해서 일관적인 크기규정을 할 수 없으나 세로2.9~3.1는 어느정도 고수되었는 것 같으며,양산부부총(2.55×2.62)을 제외하면 적석목곽분문화지역의 대금구는 3.0 cm이상의 것이 발견되고 있다. 과판부의 크기에서 본 특징은 AⅠ$_{3ㄱ}$·甲$_{가}$는 경주지방의 것이 다른 지역의 것보다 큰 점이 주목되며 AⅡ$_{3ㄱ}$·甲$_{가}$와 AⅡ$_{4ㄱ}$·甲$_{가}$는 경주를 제외한 적석목곽분문화지역의 것이 대체적으로 경주것 보다 큰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20]이다.

이상에서 대금구의 지역성을 검토해 보기 위하여 형식분포, 재질, 크기면을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 지역적으로 독특한 형식이 많이 분포하며, 동일형식 과판 이라 하더라도 허리띠의 폭에서 경주지방과 적석목곽분문화지역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Ⅲ. 帶金具의 性格

1) 冠飾型式과의 관계

경주지방에서 帶金具를 출토하는 무덤은 묘제상으로 적석목곽분에 한정되어 있으며, 묘곽형식상으로는 4개형식[17](ⅠaㆍⅠbㆍⅡaㆍⅡc)이다. 석곽묘와 옹관묘에서는 발견된 예가 없다. 대금구형식과 관식형식의 공반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보고된 200여기의 적석목곽분을 정리하면 〈表 5〉와 같다.

〈表 5〉 帶金具를 出土한 積石木槨墳의 두 類型(試案)

古墳名	帶金具型式	冠飾	古墳名	帶金具型式	冠飾
금관총	AⅠ$_{1ㄱ}$ㆍ甲$_{라}$	A−2	황오고분북곽	不明	없음
	AⅡ$_{3ㄱ}$ㆍ甲$_{가}$		54호분甲분	〃	〃
	AⅡ$_{3ㄴ}$ㆍ丙$_{사}$		20호분	〃	〃
서봉총	AⅠ$_{2ㄱ}$ㆍ甲$_{바}$	不明	황남동파괴고분2곽	〃	〃
14호분1곽	AⅠ$_{3ㄱ}$ㆍ甲$_{가}$	B−1b	황오동1호분남곽	〃	〃
금령총	AⅡ$_{3ㄷ}$ㆍ丙$_{사}$	B−3	18호분1곽	〃	〃
98호분남분	AⅡ$_{4ㄱ}$ㆍ甲$_{가}$	A−2	황오동고분남곽	〃	〃
	Bdㆍ甲$_{가}$		황오동5호분	〃	〃
98호분북분	AⅡ$_{4ㄱ}$ㆍ甲$_{가}$	B-1b,A-1	149호분	〃	〃
천마총	AⅡ$_{4ㄱ}$ㆍ甲$_{가}$	A−1	16호분1곽	〃	〃
	AⅡ$_{4ㄱ}$ㆍ甲$_{나}$	B−4b	16호분7곽	〃	〃
110호분	Bcㆍ甲$_{가}$	B−1a	인왕동C지구1곽	AⅡ$_{4ㄱ}$ㆍ甲$_{가}$	〃
16호분4곽	AⅡ$_{3ㄱ}$ㆍ甲$_{가}$	없음	34호분1곽	AⅡ$_{4ㄱ}$ㆍ甲$_{가}$	〃
16호분5곽	AⅡ$_{3ㄱ}$ㆍ甲$_{가}$	〃	호우총	AⅡ$_{4ㄱ}$ㆍ甲$_{가}$	〃
식리총	AⅡ$_{3ㄱ}$ㆍ甲$_{가}$	〃	138호분	AⅡ$_{3ㄱ}$ㆍ乙$_{사}$	〃
	AⅡ$_{3ㄱ}$ㆍ乙$_{가}$	〃	82호분동곽	Baㆍ?	〃
	?ㆍ甲$_{나}$	〃	황오리4호분	Bdㆍ?	〃
33호분동곽	AⅡ$_{4ㄱ}$ㆍ甲$_{가}$	〃			

〈表 5〉에서 보면 금관총의 경우 AⅠ$_{1ㄱ}$ㆍ甲$_{라}$, AⅡ$_{3ㄱ}$ㆍ甲$_{가}$, AⅡ$_{3ㄴ}$ㆍ丙$_{사}$ 대금구와 A−2식 관식

이 공존하고 있으며, 14호분 1곽에서는 AⅠ$_{3ㄱ}$·甲$_{가}$와 B−1b식 관식이, 금령총에서는 AⅡ$_{3ㄷ}$·丙$_{사}$ 대금구와 B−3관식, 98호남분에서는 AⅡ$_{4ㄱ}$·甲$_{가}$, Bd·甲$_{가}$ 대금구와 A−2관식이,98호북분에서는 AⅡ$_{4ㄱ}$·甲$_{가}$와, A−1, B−1b 관식이, 천마총에서는 AⅡ$_{4ㄱ}$·甲$_{가}$, AⅡ$_{4ㄱ}$·甲$_{나}$대금구와 A−1, B−4b관식이, 110호분에서는 Bc·甲$_{가}$ 대금구와 B−1a관식이 세트를 이루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98호북분과 천마총의 경우 A−1관식과 AⅡ$_{4ㄱ}$·甲$_{가}$대금구와의 공존관계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경주지방의 적석목곽분에서는 대체로 특정 관식형식과 대금구형식의 세트(Set)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18] 이점은 적석목곽분문화지역으로 확대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를 위하여 경주지역과 동일한 대금구형식을 출토한 무덤의 관식형식을 정리해 보면 〈表 6〉과 같다.

〈表 6〉 帶金具型式과 冠飾型式의 相關關係

帶金具型式	洛東江 東岸地域 冠飾型式		慶州地域 冠飾型式	
AⅠ$_{3ㄱ}$·甲$_{가}$	성산동 1호분	B−1	B−1b	14호분 1곽
	내당동 59호분	B−4c		
	교동 12호분			
AⅡ$_{3ㄱ}$·甲$_{가}$	내당동 51호분 2곽	A−?	A−2	금관총
	내당동 55호분	B−4c		16호분 4·5곽
	비산동 34호분 1곽	B−2b		식리총
AⅡ$_{4ㄱ}$·甲$_{가}$	탑리 2곽	A−2	A−2	98호분 남곽
	양산부부총男	A−1	A−1, B−1b	98호분 북분
			A−1, B−4b	천마총

〈表 6〉에 의하면 적석목곽분문화지역에서는 AⅠ$_{3ㄱ}$·甲$_{가}$ 대금구는 B−1식(성산리 1호분) B−4c(내당동 59호분)과 공존하고 있는데, 경주지방(14호분 1곽)에서는 이 형식의 대금구는 B−1b식 관식과 세트를 이루고 있다. AⅡ$_{3ㄱ}$·甲$_{가}$대금구는 B−4c식(내당동 55호분) B−2b(비산동 55호분)관식과 공존하며, 경주의 금관총에서는 A−2식 관식이 부장되었다. AⅡ$_{4ㄱ}$·甲$_{가}$식 대금구는 A−2식(탑리 2곽), A−1식(양산부부총−남자)관식과 공존하는데 경주지역 98호남분에서 탑리 2곽과 같은 공존현상을 보이며, 98호북분과 천마총에서는 양산부부총−남자와 같은 AⅡ$_{4ㄱ}$·甲$_{가}$와 A−1관식 형식의 유물을 부장하고 있다.

2) 性　格

金工品의 성격규명에 있어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分與論」[21]인 것같다. 이런 점에서 보면 대금구 AⅡ$_{4ㄱ}$·甲$_{가}$와 관식 A−1, A−2의 공존현상은 매우 좋은 자료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세트가 인정되는 것은 98호남분과 의성탑리 2곽,98호북분·천마총과 양산부부총 남자이다. 그런데 과판부의 크기상 이들 지역은 〈表 4〉에서 보듯이 경주지방의 해당고분출토품과 약간씩 차이가 난

다. 이러한 규격차이의 문제를 分與論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으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른바 「共通型式」[22]의 成立이라는 점이다. 즉 AⅠ$_{3ㄱ}$·甲$_{가}$, AⅡ$_{3ㄱ}$·甲$_{가}$, AⅡ$_{4ㄱ}$·甲$_{가}$인데 AⅡ$_{4ㄱ}$·甲$_{가}$는 관식까지도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이다. 문제는 후자의 성립연대인데 앞서 언급했지만 98호분남분기부터 앞 시기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같다. 왜냐하면 〈표 3〉에서 보듯이 AⅡ$_{4ㄱ}$·甲$_{가}$대금구에서만 지역간의 재질차이(금-금동·은)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共通型式의 分布가 적석목곽분시대의 地方統治 내지는 官等制와 연관되는 듯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

맺 음 말

이상에서 帶金具의 型式분류를 과판부와 수하부의 속성 공존관계에서 시도해 보고, 재질, 크기, 분포면에서 지역성을 언급해 보았다. 그 결과 帶金具와 冠飾의 형식에 있어서 共通型式의 成立은 98호남분부터임을 지적하고 동시에 98호남분의 절대연대구명이 필요함을 제시해 보았다. 앞으로 더 많은 자료증가가 진행되어 수정·보완되길 바란다.

註

1) 尹善姬〈三國時代 銙帶의 起源과 變遷에 관한 硏究〉《三佛金元龍敎授停年退任紀念論叢Ⅱ-美術史學/歷史學/人類·民俗學 篇-》三佛金元龍敎授停年退任紀念論叢刊行委員會 1987, p. 305
2) 齋藤忠〈上代帶金具考-特に南鮮古墳出土例との比較に就いて-〉《考古學雜誌》31~6, 1941.
町田章〈古代帶金具考〉《考古學雜誌》56~1, 1970
3) 樋口隆康〈東亞に於ける銙帶金具とその文化史的意義〉《史林》33~3, 1950
穴澤咊光〈慶州古新羅古墳の編年〉《古代學》18~2, 1972.
崔秉鉉〈古新羅 積石木槨墳의 變遷과 編年〉《韓國考古學報》10·11合輯, 1981.
毛利光俊彦〈新羅積石木槨墳考〉《文化財 論叢-奈良國立文化財硏究所創立 30 周年記念論文集-》同朋社, 1983.
尹善姬〈앞의 논문〉
4) 逆心葉形銙는 '武官의 帶'로 추측(李如星《朝鮮服飾考》白楊堂, 1947 p. 250)된 이래 이것의 기능적인 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그런데 逆心葉形銙는 腰部에서 발견된 예 보다는 馬具類나 大刀類등과 함께 발견된 것들이 많아서(尹善姬〈앞의 논문〉pp. 45~52) 方形 銙板部를 가진 帶金具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어서 본고에서는 제외한다.
5) 李仁淑〈古新羅期 裝身具에 대한 一考察〉《歷史學報》62, 1974.
6) 황남동 110호분에서 출토된 대금구의 연결판은 과판부에서 잘려진 것이 아니고 따로 만들어서 붙였다. 따라서 과板部, 垂下部 모두에 현수공이 있는점이 특징이다.
嶺南大學校博物館〈味鄒王陵地區 第10區域 皇南洞 第110號古墳發掘調査報告〉《慶州地區 古墳發掘調査報告書》1. 1975, 文化財管理局·慶州史蹟管理事務所.
7) 穴澤咊光〈앞의 논문〉圖 2에 근거함.
8) 飾履塚 유해부에서도 이와같은 것이 출토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보고자는 다소 대형의 복잡한 문양이 투조되었을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梅原末治〈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1924年度 古蹟調査報告》1932, p. 218.
9) 崔秉鉉은 甲$_{가}$속성의 수하부로 추정하고(崔秉鉉〈앞의 논문〉p. 224 圖版4) 있는데 비해, 尹善姬는 乙$_{가}$ 속성으로 추정하고(尹善姬〈앞의 논문〉p. 337 圖面4~1)있으나 모두 따르기 어렵다.
10) 慶州博物館〈冷水里 石室古墳 發掘調査〉《博物館新聞》235號 1991. 3. 1.
11) 〈表 1〉에서 보듯이 경주식리총에서 발견된 甲$_{나}$의 수하부가 창녕교동 2호분에서도 발견되지만 과판부의 속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4개형식의 공통적 형식분포로 설명한다.

12) 崔秉鉉〈古新羅鐙子考〉《崇實史學》1, 1983.

13) 尹善姬〈앞의 논문〉p. 27.

14) 東潮〈古新羅・有棘利器考〉《古代學硏究》89, 1979.
朴普鉉〈樹枝形立華飾冠의 系統〉《嶺南考古學》4, 1987.

15) 町田章〈앞의 논문〉

16) 대금구의 형식이 시기적인 변천을 나타내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비교적 공존기간이 긴 AⅡ$_{4}$ㄱ・甲$_{가}$와 같은 것도 있다. 대금구도 환두대도처럼 型式=身分差異(馬目順一・穴澤和光〈龍鳳文環頭大刀試論－韓國出土例を中心として－〉《百濟硏究》7, 1978)를 설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만 대금구에 있어서 경주와 적석목곽분문화지역 사이에 재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AⅡ$_{4}$ㄱ・甲$_{가}$이며, 이를 출토한 고분은 98호남분, 98호북분, 천마총 등이다. 98호남분의 연대는 황남동 110호분 다음 단계로 설정하는데는 공통적이나(早乙女雅博〈朝鮮三國時代古墳の編年と日本〉《歷史公論》64~7) 절대연대비정에는 4世紀中葉說(崔秉鉉〈앞의 논문〉1981), 450年說(藤井和夫〈慶州古新羅古墳編年試案－出土新羅土器を中心として－〉《神奈川考古》6, 1980)이 代表的이다. 98호남분의 시점은 투조문이 성행하는 시기인데 中國南朝系로5세기 후반경이라 한다(崔鍾圭〈中期古墳의 性格에 대한 약간의 考察〉《釜大史學》7, 1982). 98호남분의 보고서 발행과 함께 정확한 연대구명이 필요해진다. 왜냐하면 지역적 대금구재질의 차이가 인정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17) 崔秉鉉〈古新羅積石木槨墳硏究(上)－墓型과 그性格을 중심으로－〉《韓國史硏究》31, 1981, p. 54.

18) 朴普鉉〈冠帽前立飾金具를 통해 본 積石木槨墳時代 사회조직〉《古代硏究》1, 1988.

19) 帶金具를 官位의 상징으로 보는 견해(町田章〈앞의 논문〉)가 있으나 帶金具의 型式이 너무 다양해서 특정 형식을 기준으로 삼아서 관위성으로 볼 수가 없다. 대금구자체(유물)를 관위의 상징으로 본다면 너무나 이완적인 규제현상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석목곽분이 만들어지던 시기의 신분성은 대금구라는 용어에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

20) 7세기의 대금구는 巡方과 丸鞆 鉸具 鉈尾로 이루어지는데, 帶의 幅을 결정하는 巡方의 세로길이에 주목하여 일본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3㎜의 차이를 피장자의 位階差異일 가능성을 개진하고 있으나(臼杵勳〈韓國의 銙帶金具에 대하여〉《伽倻通信》18, 1989 p. 28, 伊藤玄三〈新羅・渤海時代の銙帶金具〉《法政史學》40, 1988, pp. 34~37)일본 자체에서도 銅・石帶의 세로길이를 정리한 자료에 의해서 3㎜의 명쾌한 수치는 제시되지 않아서 과의 크기에서 位階를 찾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龜田博〈銙帶と石帶－出土銙・石帶の硏究/－ト－〉《關西大學考古學硏究室 開設參拾周年記念 考古學論叢》1983, p. 395)도 있다. 한반도 내에서 출토된 대금구의 巡方 크기를 참고로 적기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cm)

地域	遺蹟名	規格		枚數	
		巡方 (가로×세로)	丸鞆 (가로×세로)	巡方	丸鞆
釜山	華明洞 3號墳	3.1×2.8	3.1×2.3	2	2
金海	禮安里 49號墳	3.1×2.8	3.05×2.2 2.7×2.0	4	6
陜川	苧浦里 E地區 7號墳	3.4×3.1	3.2×2.45	1	1
	苧浦里 E地區 24號墳	2.8×2.5		1	
	苧浦里 E地區 26號墳	2.9×2.6		4	
		2.7×1.8	2.7×1.8	2	2
慶州	將軍路 1號墳	不明	不明	1	4
	雁鴨池	?	不明		2
		2.0×2.0 2.7×2.1	1.9×?	6 3	10
	皇龍寺址심초석하부		2.7×2.4		1
蔚山	華山里 34號墳	2.9×?		片	
公州	熊津洞 29號墳	3.0×2.645	?	2	1
扶餘	扶蘇山 西復寺	不明	不明		

益山	彌勒寺	4.7×4.7×? 4.5×4.3×?	4.5×3.5 3.5×1.8	2	6
安東	臨河面Ⅰ區域 8號墳	2.8×2.3	2.6×1.7×0.6	2	1
	〃 11號墳	3.1×2.5×0.2 (2.9×2.4×0.1)	2.7×1.7×0.35?	1	1
		2.9×2.5×0.5 2.9×2.6×0.5 (2.7 × 2.4 ×0.5)	2.4×1.8×0.5 2.4×1.8×0.8	1	2
	臨東面 水谷1洞 2號墳	2.9×2.6×0.6	2.85×2.0×0.45 2.45×1.8×0.5	1	2
軍浦	山本洞 6號墳	3.0×2.5×0.5 2.7×2.7×0.5	2.5~2.8×2.1×?	2	3
	山本洞 5號墳	3.2×3.0×0.4 3.0×2.7×?	3.0×2.5×0.6 2.8×2.2×?	2	5
	山本洞 1號墳	3.3×2.7×0.4 3.3×2.8×0.4	2.8×2.0×0.5 3.0×2.0×0.4 2.4×1.8×0.4	2	5
		3.0×2.5	2.8×1.8 2.2×1.7		
楊州	東亞大學校 博物館	不 明	不 明	4	7
	崇實大學校 博物館	不 明	不 明	11 2	3 11
不明	大母山城	6.1×3.7×0.9 5.7×3.6×1.1 6.0×3.8×1.1		3	

표에 의하면 순방의 세로 길이는 1.8㎝, 2.3㎝, 2.5㎝, 2.6㎝, 2.8㎝, 3.1㎝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비교적 외양상의 동일 형상을 보이는 7세기대의 대금구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은 5·6세기의 대금구에 나타나는 문양의 다양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定制된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5·6세기 대금구의 과판부 길이는 2.4~3.3㎝의 1㎝의 차이를 보일만큼 더 다양한 현상(尹善姬〈앞의 논문〉참고)을 나타내고 있다. 5·6세기에서 7세기로의 변화는 形態上에 있어서의 定制로 보인다. 巡方과 丸鞆을 갖춘 帶金具는 경상도·전북·충청·경기도 등 광범위한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상한연대를 7세기 중엽으로 편년하고 있다(伊勝玄三く統一新羅の帶金具－日本出土帶金具との關連で－)《伊東信雄先生追悼 考古學古代史論攷》1990, p. 373.

釜山大學校博物館《釜山華明洞古墳群》1979.

釜山大學校博物館《金海禮安里古墳群Ⅰ》1985.

釜山大學校博物館《陜川苧浦里E地區遺蹟》1987.

釜山大學校博物館《蔚州華山里古墳群》1983.

公州師範大學百濟文化硏究所〈公州 熊津洞 古墳群〉《百濟文化》14, 1981.

安東大學博物館《臨河댐水沒地域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Ⅰ)》1989.

慶北大學校博物館《臨河댐 水沒地域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Ⅱ)》1989.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雁鴨池 發掘調査報告書》1984.

文化財管理局文化財硏究所《皇龍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 Ⅰ》1984.

文化財管理局文化財硏究所《彌勒寺Ⅰ 遺蹟發掘調査報告書 Ⅰ》1989.

文化財硏究所·翰林大學校博物館《楊州大母山城發掘報告書》1990.

21) 崔鍾圭〈앞의 논문〉

權五榮〈4세기 百濟의 地方統制方式一例 －東晋靑磁의 流入經緯를 中心으로－〉《韓國史論》18, 1988.

22) 「共通型式」이라는 용어는 경주를 포함한 적석목곽분문화지역에서 "같은 속성을 가진 대금구"를 가르키는 단어로 사용하고자 한다.